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月刊『考試界』의 큰 발전을 기원하면서

月刊『考試界』의 창간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月刊『考試界』은 1956년 5월에 법률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창간되어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국가의 각종 시험의 수험생들에게 법학자들의 훌륭한 논문을 게재하였고, 각종의 수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었고, 또 교수님들과 선배 합격자들을 중심으로 시험준비에 필요한 판례와 내용정리를 충실하게 정리해 주었다. 무엇보다 선배 합격자들의 합격기를 통하여 공부방법과 정신자세를 가다듬게 해주었다.

月刊『考試界』는 창간 이래 지금까지 고시 수험생들과 교수님들의 동반자였고, 만남의 장소였다. 고시 수험생들을 지금까지 月刊『考試界』의 많은 도움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月刊『考試界』의 그 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고,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여 큰 발전이 있길 독자들 모두와 함께 기원드린다.

세상은 항상 변하는 것 같다. 현재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현실은 사회의 큰 변혁의 시점에

와 있는 것이 분명하다. IT 기술이 무한성장의 궤도에 들어서면서 제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러한 기술혁명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하여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산업의 큰 틀이 꿈틀거리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급격한 환경에 부응하고 선도적 역할을 통하여 큰 성장을 목표로 전력투구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과 중국 등 세계 열방국가들은 반도체를 넘어 IT기술과 바이오, 신성장동력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국가의 발전에 최선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의 변화 속에 우리 법률권역의 생태계도 급격히 바뀌어 가고 있다. 법률과 법학은 국가와 사회의 골격을 잡아주는 핵심 산업이다. 법조인 양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도입되어 10년이 넘어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한편 법학이라는 면에서 보면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학부에서의 법학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로스쿨이 아니면 학부에서 법률교육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면도 있다. 사실 학부에서 법학교육을 하여 온 100년 이상의 전통은 매우 자랑스러운 역사이고, 이것은 로스쿨의 출발 여부와 관계없이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훌륭한 전통이다. 학부에

정영환

- 현) 제15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 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민사법학)
- 고려대학교 교무처장
- 한국민사집행법학회 회장
- 대법원 재판연구관
-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의 각종 법학교육을 통하여 법적 기초소양을 갖춘 시민을 길러 내야하고,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각종 공무원시험, 변리사시험과 법무사시험, 법원행정고등고시 등을 통하여 각 분야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해 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부에서의 법학교육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로스쿨을 통하여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전문가가 국가기관과 기업 등에 진출하여 해당 분야의 엘리트들과 협업을 통하여 공정과 정의 속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어 내야한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보다 높은 비전을 통하여 경제적·정신적 발전을 계속 추구해 가야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 있는 개인들은 장래의 변화에 대한 기대와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 특히 자신의 장래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각종 고시의 수험생들은 말할 것

도 없다. 月刊『考試界』은 지난 65년 동안 훌륭하게 미션을 잘 수행하여 온 것 같이, 현재의 수험생의 마음을 충실하게 읽어 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수험서로서 인생의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여주길 바란다.

月刊『考試界』는 수험생들에게 시험정보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에서 길을 안내하는 등대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재삼 명심해 주시길 바란다.

月刊『考試界』는 지금까지 65년 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비전과 전략으로 나아갈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아니한다.

거듭 月刊『考試界』의 창간 6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더 큰 발전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린다.